



좋은이웃교회 GOODNEIGHBOR CHURCH

목장나눔지

좋은이웃교회는 감격이 넘치는 주일예배와 사랑이 넘치는 목장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된 초대교회의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와 '집에서 떡을 떼며'라는 말씀을 근거로하여 주일은 '온세대공동체'가 모이고, 주중에는 '작은공동체'의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공동체: 목장모임은 '나눔중심예배'입니다. 설교자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적용점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코이노니아공동체'입니다.



WELCOME

함께 모인 목장원들이 환영받고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도자(목자)의 재량에 따라 간단한 게임이나 유머를 통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고, 또는 식사를 먼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WORSHIP

- 1) 익숙한 찬양을 준비하여 찬양예배를 드립니다(15분).
- 2) 찬양은 예비과정이 아니며,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합니다. 찬양 자체가 예배의 본질입니다.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찬양예배를 드리십시오.
- 3) 목자가 항상 인도하지 말고, 은사를 가진 목장원 또는 서로가 돌아가면서 준비하면 좋습니다.



WORD

- 1) 주일설교/개인묵상 나눔 > 예수님 자랑하기(감사) > 예수님 기대하기(기도제목)을 나눕니다.
- 2) 말씀나눔은 설교 또는 개인묵상에 대한 적용을 나누는 것입니다.
- 3) 예수님 자랑하기(감사)는 한 주간 동안 삶에 감사했던 일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 4) 예수님 기대하기(기도제목)은, 어려움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깊이 있게 나누는 것입니다.



WORK

- 1) 함께 나누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서로가 중보기도하는 시간입니다.
- 2) 시간이 여유롭다면 한 사람씩 소그룹 가운데에 넣어, 몸에 살짝 손을 얹어 중보기도 합니다.
- 3) 기도는 준비가 아니라, '사역'입니다. 중보기도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주일설교

제목: 한 해의 결산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5절

고린도전서는 사도바울이 3차 선교여행 중 에베소에서 기록하였습니다.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이며, 육로와 수로로 상업상 교통이 빈번한 곳입니다. 고린도에는 많은 인종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우상도 많았고, 생활은 사치했으며, 윤리적으로는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내용은 교회의 갈등과 문제에 대한 사도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신자(성도) 사이에 사랑이 없어서 분열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문제의 해결은 신비로운 은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강조합니다. 즉,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체험했고, 성령의 은사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교회 내에서 파당과 불화가 계속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사도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들의 인생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결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편지를 쓴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산과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신의 주관적 관점에서 본 판단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판단을 작은 일로 여겼습니다. 3절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합니다. 자신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점을 회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판단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관점에서만 본 판단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관적인 판단은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극단적인 '자학'과 지나친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교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4절에서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의 '오류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둘째, 타인의 관점에서 본 판단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판단하는 타인의 결산은 참고사항일 뿐이지 인생에 대한 마지막 판단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판단에도 편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나를 나쁘게 평가해도 좌절할 필요가 없고, 칭찬한다고 흥분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인생의 진정한 판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4절에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고 말을 합니다. 5절에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 것도 판단하지 말라 ...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라고 우리의 인생에 대한 판단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판단의 목적이 칭찬으로 상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에게는 결코 심판에 이르지 않으며, 영생과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요한복음 5:24; 베드로전서 1:7절). 그리고 상급을 받기 위해서 사도바울은 1-2절에 “말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삶의 결산과 판단은 자신의 주관적 관점이나 타인의 관점에서 본 판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좋은이웃교회'의 신자(성도)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마땅히 충성하며,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넘치도록 쌓이길 소망합니다.

나눔질문

1. 여러분! 삶의 결산과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2. 여러분은 삶의 결산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일제강점기 험벗고 고통받던 시절, 검정고무신과 무명한복을 입은 한 여인이 전라도 일대를 한 달여 간 순회한 뒤 이런 글을 남겼다. "이번에 만난 여성 500명 중 이름이 있는 사람은 열 명뿐입니다. 1921년 조선 여성들은 이름 없이 큰년이, 작은년이, 언년이, 간난이, 개똥이 등으로 불렸습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글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간호 선교사로 조선에 발을 내디딘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Elisabeth Johanna Sheppin, 1880-1934)의 기록입니다. 당시 조선의 상황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나했고, 전염병으로 병자가 넘쳐나던 시절입니다. 그녀는 조선에 선교사라고 왔지만, 백성들 위에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섬김에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조선인들 일상의 눈높이에서 먹고 마시며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또한 그녀는 서양식 삶을 버리고 조선말을 익혀 자신의 이름을 '서서평'이라 지었습니다 '서서히, 소처럼 느릿느릿, 모난 성질을 평평하게'라는 의미를 담은 이름입니다. 그녀는 조선인의 친구이기 전에 조선인으로 살았습니다. 당시 선교사에게 주어진 하루 식비는 3원, 그녀는 10전으로 허기를 채우고 나머지는 어려운 이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걸인들을 데려와 씻기고 옷을 사 입히고, 환자가 버린 아이를 수양아들로 삼아 데려다 키운 아이가 14명, 오갈 데 없는 여인 38명도 거두어 보살폈습니다. 가진 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모두 내어주고 정작 자신은 영양실조로 삶을 마감한 서서평 선교사가 떠난 남루한 방에 남은 것은 남에게 나눠주고 반쪽이 된 담요와 동전 일곱 전, 그리고 강냉이 두 홉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침대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THINK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성도가 사는 이유입니다. 혹 내 삶이 성공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목숨을 내어 주려 오셨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초대하십니다. 예수 제자의 삶,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삶에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목장보고서를 주일예배 후에 목장사역센터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수요일예배 담당안내					
담당	11월 30일	12월 7일	12월 14일	12월 21일	12월 28일
마을특송	섬김	살롬	온유	청장년부	임마누엘
대표기도	한선미 권사	전진희 권사	안병자 권사	최오숙 권사	한영문 권사

마을별 교회봉사 담당안내					
담당	11월 27일	12월 4일	12월 11일	12월 18일	12월 25일
본당청소	샘솟는	섬김	살롬	온유	임마누엘
중식봉사			청장년		

주요광고

- ◎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 4층 VIP실로 이동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총동원가족주일(성찬식) / 일시: 12월 4일(주일) 9, 11시 / 장소: 3층 본당
- ◎ 세례자 교육 / 일시: 11월 20일(주일)부터 5주간 / 중식 후 12시 40분 / 장소: 4층 VIP실
- ◎ 전도대회 VIP 중간집계 / 마을장님들께서는 12월 첫 주까지 마을별 VIP(전도대상자) 중간 조사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문의: 목장사역센터).
- ◎ 마을장. 목자 위로회 / 일시: 12월 11일(주일) 오후 5시 / 장소: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 ◎ **아가페 한 영혼 초청잔치 / 일시: 12월 18일(주일) 오전 11시 / 장소: 3층 본당**
- ◎ 부서 총회 및 결산보고/ 사무연회 준비를 위해 12월 18일까지 목장센터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2023 강단헌화자 /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신청서가 게시되었으니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파워전도대 토요일전도 (2시 30분 / 2층 집합).

사랑 나눔 전도가 '매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금주: 안수집사회 / 다음 주: 서리집사)

■ 교우소식 ■

- ◎ 치유 중보 기도: 김수차 권사/유수림 권사/김해생 권사/이문형 장로/김진석 집사/이향숙 사모/
유춘자 권사/ 조병양 집사/조인상 집사/문동준 청년/장순희 집사/서승석 성도/백선기 집사/김채영 권사
- ◎ 출산/ 현정훈 집사 권민지 집사 득남(청장년마을)
- ◎ 부고/ 조인상 집사(김채영 권사의 남편)

전도합시다!

초청주일 12월 18일 주일 11시!!
순종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